

## 젠더화된 국가 재건과 잃어버린 열정: 박경리의 『표류도』(1959) 다시 읽기

김 은 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 ◆ 국문초록

박경리의 『표류도(漂流島)』(1959)는 사랑은 여성에게 상승과 구원일 수 있는지 질문하는 문제적인 텍스트이다. 박경리는 해방세대 여성 지식인의 사랑을 통해 사회 재건의 젠더정치적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 사생아를 낳은 전쟁미망인의 사랑과 좌절의 서사는 식민지기의 '신여성', 해방기의 '노라', 전후의 '아프레 곶'로 이어지는 여성 주체화의 시간이 재조정되는 젠더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형법이 시행된 1953년부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인 1960년까지는 전쟁미망인의 증가, 생계 불안, 전통 질서의 동요, 미국 문화의 확산, 범죄와 부패의 범람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불거진 시기였다. 이렇듯 위태롭고 불안한 사회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은 성적 문란함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것 혹은 비국민을 발명해 내는 풍기문란의 정치였다. 국가 권력이 겨냥하는 대상은 대체로 정상 가족 바깥의 여성들이었다.

주제어 : 박경리, 사랑, 연애 소설, 섹슈얼리티의 위계, 젠더화된 재건, 풍기문란의 정치 등

### 1. 서론: 실격당한 여성들의 시간

한국의 전후는 역사가 인간을 버렸다고 할 만큼 재난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다수의 신문과 잡지가 창간되어 공론장을 중심으로 사회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재건기였다. 특히 1950년대의 시간성 속에서 '사랑'은 전통 사회와 충돌하는 위험한 열정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세속적 이상과 결합하며 역

사의 무대에 ‘등정’함으로써 한국 근대화의 본격적인 진행을 암시했다.<sup>2)</sup> 매체들은 명사의 가정 탐방기 등 중산층 계급의 사생활을 가시화함으로써 독자의 엿보기 욕망을 부추기는 한편으로 행복은 의좋은 부부 관계를 핵심으로 한 스위트 홈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은 사생활 속에서 공인의 허울을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독자를 설득했다. 공공의 복리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저마다 세속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 부추겨진 것이다. 해방 공간을 격렬하게 진동시킨 이념적 갈등이 한국 전쟁으로 억눌려지면서 자유주의를 공간으로 한 근대화 기획에 박차가 가해진 것이다.

그러나 근대로의 이행은 단일하고도 일률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지역과 계급, 성과 세대 등에 따른 불균등과 불평등, 억압과 지체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경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sup>3)</sup> 특히 당대의 지식인과 지배 엘리트들은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후원에 기대어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으로 전통과 근대, 토착과 외래 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탈식민 근대의 길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예 공론장은 전통도 근대도 아닌 경계적 시간성 속에 위치한 전후의 독자에게 개인화의 동기를 불어넣는 한편으로 탈식민적 민족의 재건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돈의 조정자 역할을 기대받았다. 사랑을 다룬 서구 소설들이 재번역되기 시작해 여성 독자를 위한 ‘정전’으로 소개되는 한편으로 ‘순정’ ‘명랑’ ‘에로’라는 여러 수식어들과 결합하며 소비재로서 로맨스 소설들이 쏟아져

1) 식민지 조선에서도 자유 연애는 근대성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통적 가부장제가 온존해 있고, 여성들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애는 육체적인 방종이나 타락을 뜻하는 것으로 왜곡되는 한편으로 혼인과 가족 제도의 개조를 외치면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재정의하고자 한 신여성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근거가 되었다.

2)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불가능한 과도한 애착과 갈망 그리고 대상에 대한 애증병존으로 인해 무질서나 혼란을 초래하는 감정으로 여겨져 왔다. 서구 철학은 이렇듯 병리적이거나 에로틱한 사랑을 교육하거나 개선해 사랑을 일반적인 사회적 목적에 좀 더 친화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되풀이해 왔다. 마사 누스바움은 이러한 서구적 전통을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행위에 비유해 ‘등정’이라고 한 바 있다.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사랑의 등정』, 조형준 역, 새물결, 2015, 856-857쪽.

3) 김영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174쪽.

나와 독자를 사로잡는 등 사랑이 문화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전후의 로맨스 소설은 ‘가치관의 변화나 성과 사랑에 대한 습속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등 전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측거점’이기도 하지만<sup>4)</sup> “새롭게 도래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부박한 서구문화를 흉내 낸 개방적 세태에 대한 경계 속에서 극도의 정신주의로 치닫는”<sup>5)</sup> 데서 짐작가능하듯이 풍속의 정화라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 받았다. 휴전이 되어 남성들이 후방에 귀환함에 따라 가정 영역으로 되돌아간 여성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로맨스 소설의 열렬한 독자층이 되었다는 점은 로맨스 소설이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음을 암시한다. 해방과 전후로 이어지는 여성적 시간의 불균질적인 낙차를 조절하고 봉합하는 역할이 로맨스 소설에 맡겨진 것이다.<sup>6)</sup>

이러한 사회 진행의 새로운 국면 속에서 식민지기 문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며 남성중심적인 문단에 진출했다. 그러나 전후 문단에서 여성 작가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 문학 질서를 위협하기보다 승인 혹은 인정을 기대해야 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 여성의 글쓰기는 창조적 작가로서의 미적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여성 작가의 문학은 현실을 다양하게 재현하며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문화 규범에 저항하고 대안적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어 ‘자율 미학의 결핍’으로 간주된 것이다. 기실 전후에 여성

4) 류경동,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연애와 새로운 소비 주체」,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63쪽.

5)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戰後 사랑의 인식구조-1950년대 수록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167쪽.

6) 로맨스 소설을 단순히 자율 미학의 결핍이나 상상력의 부재로 치부되지 않고, 독자 수용미학의 측면에서 지배문화에 도전하는 여성 소비자들의 능동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탈근대론과 함께 대중문화 연구가 부상하면서 로맨스 장르와 여성 독자에 대한 전복적 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재니스 래드웨이는 특정 지역의 중산층 여성들의 로맨스 소설 읽기 행위에 대한 인종기술적 연구에서, 그간 ‘여성용 포르노’로 폄하되어온 로맨스를 지배를 갈망하는 여성의 매저기즘적 속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여성의 자립성과 가부장제의 여성 규범을 넘어서는 욕망으로 재해석했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송승철, 「대중문화의 불온성 논쟁: 재니스 래드웨이의 문화연구적 고찰」, 『영미문학연구』 1, 영미문학연구회, 2001, 1-14쪽.

작가들의 문단 진출이 늘어나고 활동이 증대된 것은 전쟁으로 문인들이 대거 납북되거나 월북함으로써 문단이 작가 기근에 시달려서만은 아니었다. 여성문학을 가리키는 “규수문학”이라는 멸칭이 암시하듯이 여성 작가들은 여성 독자가 성차화된 여성 교양 담론을 여성 독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여성이 가부장제의 제도적 성 규범에 순응하며 자아를 검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요청받았다. 여성 작가들은 사랑을 신비화하고 여성의 희생을 이상화함으로써 여성 독자가 문학 작품을 통해 해방을 꿈꾸기보다 비현실적이고 반세속적인 가치로서 여성성을 선망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환상을 주입했다. 기실 “규수 작가”라는 호명은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라기보다 여성의 문학은 어디까지나 ‘숙녀’ 담론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제적 목소리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 여성 작가가 문학/출판 시장에서 유익함과 즐거움이라는 문화적 효과를 주는 작품을 쓸 경우에만 ‘저자성’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여성들의 글쓰기가 처한 또 다른 곤경이었다. 예술로서의 문학과 자율미학을 추구하던 남성 작가와 다른 글쓰기 방식을 고수해야만 작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성 작가가 처한 현실이었다. 남성 작가들이 문예지와 대중 매체를 오가며 문학생과 상업성 간의 균형을 유지한 데 반해 문단의 주변부에 위치한 다수의 여성들은 매체를 창작 활동의 주된 무대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성 작가는 “규수”라는 이름으로 여성용 지정석에 위치지어지고 이는 여성문학의 계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박경리의 『표류도(漂流島)』(1959)<sup>7)</sup>를 낙인찍힌 섹슈얼리티를 통해 전후를 실격당한 여성들의 시간으로 초점화함으로써 사랑이 여성의 자유와 해방의 사다리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매우 예리하고 논쟁적인 작품으로 주목해 보고자 한다. 여성 작가의 정전 배제는 ‘읽고 쓰는 능력 그 자체로부터의 배제’를 뜻한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의 성취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 『표류도(漂流島)』는 『현대문학』에 연재되어(1959.2-11) 1959년에 현대문학사에서 발표된 장편소설로, 제3회 ‘내성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글은 1999년 나남출판사에서 나온 텍스트를 판본으로 삼았다. 이후 소설을 인용할 때는 쪽수만 표시하겠다.

근대 인권의 개념이 정초된 프랑스 혁명에 남성다움은 시민권, 개인성과 동일시되었지만 여성은 인간의 원형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다. 수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등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출생, 가족, 부, 직업, 재산, 종교 등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는 추상적 개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근본적으로 같다면 인간을 단 하나의 개인으로 형상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추상적 개인주의가 전제로 하고 있는 인간의 단일한 형상은 남성과 다른 몸을 가진 여성을 배제하는 구실이 되었다.<sup>8)</sup> 이렇듯 시민권 개념 자체가 젠더화됨으로써 여성에게는 사회 계약을 대신해 ‘결혼 계약’이 시민의 자격을 얻는 조건으로 주어졌다.<sup>9)</sup> 부유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신분 차에도 한 눈에 반하는 이야기를 가리켜 재크린 살스비가 “낭만적 사랑은 경제 결혼의 추악함을 은폐하기 위해 화려한 베일을 필요로 한다”고<sup>10)</sup> 풍자했던 것은, 근대 전환 이후 여성이 처한 곤경을 로맨스 서사가 역설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맨스는 박탈당한 자들의 반사실적 사고”<sup>11)</sup>, 즉 경제적으로나 각종 권리 상에서 취약한 여자들이 구원을 소망하는 주술인 것이다.

더욱이 사랑은 결코 허구나 몽상에 머물지 않고, 여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자기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 
- 8)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백과전서』에서 “피터는 인간이고, 폴도 인간이다. 그들은 같은 종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헤아릴 수 있는 차이로만 구별된다. 한 사람은 잘 생겼고, 다른 한 사람은 못생겼다”고 함으로써 대조의 관계로 개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공통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려고 했다. 조앤 웰라치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 프랑스 여성참정권 투쟁이 던진 세 가지 쟁점 여성.개인.시민』, 공임순, 최영석, 이화진 역, 엘피, 2006, 41쪽.
- 9) 남성은 자신이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정을 필요로 하지만, 여성은 시민적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있기에 사회의 유명을 면하기 위해 그것을 갈망한다. 유명한 로맨스 소설인 『오만과 편견』의 “상당한 재력가인 미혼 남자는,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다는 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리다”는 유명한 문장이 암시하듯이 결혼 선택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마크 다아시라는 부르주아 남성이다. 제인 오스틴은 이렇듯 결혼 선택을 둘러싼 아키텍처를 여성의 시각에서 교란함으로써 로맨스 소설의 상투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 10) 재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45쪽.
- 11)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1996, 92쪽.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여성 교양의 목록이다. 벨 훅스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가부장적 세계에서는 결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랑에 대한 집착은 시작”되며,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여성이 되는가의 문제라”고<sup>12)</sup> 한 바처럼 사랑은 여성 종속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해방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사랑은 답답한 현실을 가로지르고 탈주하기 위한 자아의 기획이라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주체의 열정과 대상 선택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랑은 여성이 잃어버린 자기와 접속하고 부활을 기획하는 문화의 전선이 되어 왔다. 한국 식민지기 잡지나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정해진 남자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 죽음을 결단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그녀들은 눈물 섞인 유서 한 장을 낚신 채 달려오는 철도에 뛰어 들거나 독약을 삼김으로써 가부장적 친족 공동체에 저항하며 자유 연애의 신도로서 죽었다. 열정은 순진성의 베일을 두른 계산된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위반의 에너지이다. 사랑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인가 아니면 위반의 열정인가’라는 질문은 답변이 쉽지 않은 딜레마인 것이다.

『표류도』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민족 국가 재건의 욕망과 가부장제가 새롭게 결합되면서 정상 가족 바깥에 선 전쟁미망인이나 여성 지식인 등이 ‘위험한 여성’으로 포착되는 한편으로 여성 작가들에 의해 가부장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여성 주체의 재현이라는 서사적인 반격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해 이루어졌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랑’의 서사에 대한 좀더 냉철한 분석에 의거할 때 좀더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박경리는 전후 여성 문화 속에서 사랑의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여성의 부자유한 현실을 고발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아와 욕망을 이야기하는 재현의 주체이고자 했다. 이 글은 로맨스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하다는 점에서 순진무구한 여성 주인공들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여성 장르로 ‘숭고한 여성’들은 여성 본성의 어떤 부분을 표현한다기보다 ‘시민적 권리 없음’이라

12) 벨 훅스, 『사랑은 사치일까?』, 양지하 역, 현실문화, 2015, 11쪽.

13)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 방식 : 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인문학연구』 47, 2014.

는 여성의 현실을 풍부하게 역설한다는 점에 주목해 비판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나 사랑과 로맨스 소설은 분명 그 지시 대상이 다르지만, 로맨스를 인간의 유토피아로 상상할 수 있게 한 데 로맨스 소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양자는 실제 잘 구별되지 않는다.<sup>14)</sup>

## 2. 부권(父權)의 귀환과 해방세대 여성의 사랑

『표류도(漂流島)』(1959)는 가난하고 외로운 여자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연애 소설의 문법에 들어맞지 않는 이질적 요소로 가득한 작품이다. 전후의 로맨스 서사는 상처입은 남자와 치유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구도를 취하지만, 여주인공 강현희는 전쟁의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어 구원의 여성이 될 만한 감정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는 전쟁을 남성들의 희생이나 수난과 동일시함으로써 여성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한편으로 여성은 전시 하에 남성보다 더 안전하며, 심지어 여성의 생존은 남성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고 가정해왔다. 그러나 여주인공 강현희는 전쟁의 지속 시간을 보여준다. 그녀는 “제빙공장(製氷工場) 속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팍 들어박혀 오는 듯한 무서운 느낌”(6쪽)에 시달리며 죽음을 소망한다. 남편 찬수의 피에 젖은 얼굴, 가늘게 경련하는 손, 산산이 바스라진 팔목 시계의 이미지가 돌발적으로 재귀해 와 그녀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실을 애도하지 못한 채 형별인 양 죽은 자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지만, 노모와 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여성 가장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전쟁이다. 다방의 월세를 밀리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14) 이 글에서는 ‘로맨스’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화이어스톤은 ‘로맨스’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이 생식에서 자유로워지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찬양함으로써 여성 지배를 존속하기 위한 가부장제 문화라는 점에서 ‘사랑’과 구별지어 비판적으로 명명한다. 화이어스톤, 앞의 책, 213쪽.

“쫓겨났다고요? 왜?”

“질서라든가 명령에 견뎌 배길 수가 있어야죠. 먹을 것이 없으면 양말장수 비누장수 막 닥치는 대로 해먹던 장돌뱅이 버릇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어지간히 고집이 세계 생겨먹은 얼굴이기는 해요.”

상현씨는 노다지로 털어놓는 내 말이 재미있다는 듯 우스개로 응수한다.

“그렇지만 쫓겨난 직접적인 원인은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이예요.”

서슴없이 주워섬긴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요?”

“그럼요. 전 사생아를 낳았거든요.”

“사생아?”

“혼인 수속도 하지 않고 애기를 낳았던 말예요.”

마치 남 일을 설명해 주듯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35-36쪽)

그러나 강현회가 숨기지 못하는 짙은 우울과 예민한 자의식은 상실감이 나 생활고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은 강현회와 저널리스트인 이상현의 첫 데이트에서 오간 대화로, 그녀의 우울이 낙인 찍힌 섹슈얼리티에서 비롯된 분노와 뒤섞여 있음을 암시한다. 강현회는 이상현이 고학력자이면서도 다방 마담으로 나선 이유를 묻자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이 자신이 사생아를 낳았다고 고백한다. 고학을 하는 여대생이었던 강현회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유로 세상의 통념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찬수와 동거를 시작한다. 찬수의 친구이자 그녀를 후원해 온 ‘김 선생’의 표현처럼 그녀는 세상의 통념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씩씩하고 야문 여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 중 찬수가 공산당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딸 혼아를 출산한 그녀는 그저 ‘소문 속의 여자’로 전락한다. 그녀는 전쟁 중 남편을 잃었지만 법적으로 혼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보호나 동정의 대상이 되는 ‘전쟁 미망인’이라는 이름조차 얻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는 독립과 자존의 증거였던 그녀의 사랑을 건전한 사회를 위협하는 추문으로 낙인찍고, 혼전 동거, 사생아 출산의 이력을 빌미로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추방한다. 그녀는 서울대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났지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김 선생의 후원으로 번역 일에 종사하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게 되

자 양말장수, 비누장수 등 무규칙하게 계통도 없는 일을 닦치대로 해 왔다. 다방 마돈나는 그렇게 차츰차츰 밀려나 그녀가 도달한 ‘세상의 끝’이다.

이 소설은 순결하지 않은 여자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후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실감과 그 의미를 포착하고 있다. 강현희의 이야기는 사적인 경험을 뛰어넘을 만큼 시대의 풍속에 대한 여성의 내밀한 체감을 담고 있다. 『표류도』는 재건의 젠더 정치적 속성을 해방 세대 여성 지식인의 전후 경험을 통해 포착하고 있기에 특별한 작품이다. 그 자신 전쟁미망인이었던 박경리의 문학적 분신이기도 한 강현희는 해방 세대로서 식민지 근대화와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시간의 의미를 묻는 인물이다. 해방세대 여성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일제의 패망을 목도하고 탈식민 해방 조국의 건설과 함께 분 남평등의 바람 속에서 가부장적 공동체로부터 일시적으로 탈주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 역사상 새로운 여성 집단이지만 여성문학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들은 청소년기 일본 제국의 치하에서 ‘현모양처’ 교육을 받지만 동서를 막론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신여성’의 출현을 목도하고 잡지나 영화 등 매체를 통해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어머니와 다른 삶을 상상한 최초의 세대라는 점에서 ‘포스트 신여성’들이기도 하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붉은 사랑』을 읽었다는 강현희의 회고는<sup>15)</sup> 해방세대가 신여성이나 ‘맑스 길’ 문화에 영향받으며 성장했음을 암시한다. 해방세대 여성들은 식민지기 신여성들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면서도 새로운 시간에 접속해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신 여성이었다. 그 결과만 놓고 보자면 해방은 분단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한 역사적 기점이지만 해방기는 제국과 가부장제로부터 이중 구속 상태에 놓인 여성에게 자유를 선사했다. 비록 새로운 통치자인 미국이 준 선물의 성격을 무시할 수 없지만 여성 정치 단체들을 위시로 공창제 폐지, 가족법 개정, 여성 참정권 획득 등 여성의 성원권 획득을 위한 일련의 정치 활동이

15) 사회주의자인 콜론타이는 여성의 예측 상태에 기초를 둔 영속적 결혼은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뒷받침되는 노동자 국가의 두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철폐와 젊은 여성이 자신의 감정과 애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콜론타이 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엮음, 책갈피, 2015, 76-98쪽.

이루어졌다. 박경리는 식민지기 급진적인 여성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신여성  
과 구별되는 해방 세대 여성 작가로서 식민지기의 ‘신여성’, 해방기의 ‘노  
라’, 전후의 ‘아프레 곁’로 이어지는 여성 주체화의 시간이 재조정되는 국면  
을 포착하고 있다.

“법은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국  
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1955)이나<sup>16)</sup> 가정 부인의 탈선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정비석의 신문연재소설 『자유부인』(1956) 논쟁은 전후 사회  
의 재건이 남성이 사회의 주도권을 여성에게서 되찾아오는 젠더 정치였음  
을 뜻한다. 젠더화된 재건 프로젝트는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경유하며 전통적  
인 성별 질서가 무너진 데 대한 남성의 불안을 역설한다. 전쟁의 시간 동안  
여성은 시장의 상권을 장악하고 남성이 전담해오던 일자리를 위협할 만큼  
유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  
를 받는 남한 사회는 기지촌의 형성과 양공주의 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성  
적 점령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어머니나 누이에 기생해 살고  
있다는 데 한층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회의 재건이 남성성 복원  
을 뜻하는 한 탈식민 민족 국가의 건설은 전통적 질서로부터 이탈한 여성들  
을 처벌하거나 교정하는 여성 혐오 정치의 부활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는  
여성에게 현모양처의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이나 경제 활동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고, 풍기문란의 프레임을 씌워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해 갔다.

이러한 전후 사회의 현실은 강현회로 하여금 숨 죽이듯 고요히 삶을 꾸  
려오게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강현회는 한국문학사에서 기억될만큼 순응  
과는 거리가 먼 반항아다. 가령 그녀는 다방 마돈나를 젠더 역전의 퍼포먼  
스의 장으로 만드는 놀이에 몰두한다. 마돈나를 싱글 여성이 미모 자본을

16)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가 여성을 간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박인수는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명  
의 여성과 관계하였는데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인 여대생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  
다는 주장으로 인해 ‘순결의 확률이 70분의 1이다’라는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다.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  
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  
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길박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팔아 생계비를 버는 비루한 삶의 현상이 아니라 엘리트 여성으로서 좌절된 주체 위치를 회복하는 젠더 역전의 장으로 삼는 것이다. 그녀는 다방의 카운터를 “서울 장안을 굽어보는 감시대”(105쪽) 삼아 손님인 예술가, 지식인, 관공리, 유명 인사, 귀부인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이들을 “한밑천 잡아보려고 드는 족속들”로 낙인찍는다. 전후 사회에서 다방은 손님의 오피스이자 남성 손님이 아름다운 마담과 레지에 대한 시선의 쾌락을 향유하며 일말의 성적 가능성을 기대하는 공간이다. 다방의 상호가 ‘마돈나’인 것처럼 손님(남성)들은 마담(여성)에게 모성적 구원과 성적 쾌락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전된 젠더 놀이는 기실 수치심에 나포되지 않고 그럭저럭 자존심을 챙기기 위한 기만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이 사생아를 낳았다고 까발리는 것 역시 자신을 향한 모멸의 시선을 쿨하게 되돌려줌으로써 수치의 포로를 면하려는 전략이다. “구제품을 배급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베푸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지 않습니다. 반감과 미움에 가득 차 있죠”(43쪽)라는 발언은 냉소가 자존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임을 뜻한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의 대면을 회피하는 전략적 방법을 통해 자기의 주체성을 사수해 온 것이다.

젊은 시절의 강현희는 ‘정조론’을 비롯하며 자유 연애를 추구하는 신여성의 후예였다. 그러나 휴전과 함께 부권이 귀환하자 세상으로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사실상 고립을 선택한다. 무의미한 상념에 빠지기 위해 기계적으로 뜨개질을 하는 것으로 비활성화된 삶을 살아간다. 특히 깊은 고독에도 불구하고 무성애자의 삶을 선택하는데, 무성애는 음란함의 낙인이 찍힌 그녀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방어책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방의 손님으로 온 이상현이 무심히 건네는 인사에도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정념은 깨어나, “사랑은 환상”이고 “연애를 생각한다는 것은 굴중”이라며 냉정함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키며 어느새 “안경 저편에 있는 그의 눈 속을 헤”(13쪽)매게 할 만큼 그녀를 뒤흔든다. 그녀는 친해지고 싶다는 상현의 말에 자신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다. “피차 사는 세계가 다를 적에는 자연히 친해질 수 없을 거예요. (중략) 철로처럼 끝까지 합쳐지지 않으니 못친해지죠”라는 말은 한국의 상류계급인 이상현에 대한 강현희의 계급적 자의식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상현이 어엿한 가정을 거느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사랑을 두려워하는

더 중요한 원인이다. 사랑은 음란한 여자라는 낙인의 폭력 속으로 그녀를 다시 끌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냉동고처럼 얼어붙은 그녀를 “격렬한 교감(交感)에 또다시 얼굴이 타고 팔다리가 나른해지”는 정념의 환희에 휩싸이게 한다.

강현희는 두려움에 움츠리지만 마돈나의 여종업원인 광희의 “정조란 것은 아무 것도 아니죠?”라는 물음을 계기로, 애정의 윤리는 ‘정조’, 즉 육체의 순결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일 뿐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자신을 기억해 낸다. “나는 정조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했기에 사생아를 낳았어. 그러나 나는 애정은 꼭 귀한 걸로 알고 있다.”(108쪽)는 답변은 가부장적 정조론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을 무시하고 거침없이 사랑했던 그녀의 본래적 자아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답변은 성법(性法)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위계화함으로써 혼인 제도 바깥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감시하는 전후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마저 함축하고 있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이상현의 구애를 물리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한다. ‘성법(性法)’을 비웃으며 사랑의 용기로 억압적인 사회를 횡단하고 탈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밀애를 위해 상현과 ‘표류도’로 향하는 기차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지만 단단히 결의를 다진다. 그녀는 만약 처벌이 신에 의해 마련된다면 자신은 신을 설득시킬 것이고, 인간이 마련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한다. “당연히 맺어져야 할 우리들이다. 집착인가? 집착이 아니다. 생명인가? 생명도 아니다.”(172쪽)라는 서술은 자기의 사랑이 외로운 자의 집착이거나 욕망의 발로가 아니라는 항변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숫제 인간들이 서식하지 않는 밀림이나 동굴 속 같은, 흔히 표류기(漂流記)에 씌어진 고절(孤節)된 곳”(171쪽)에서 사회의 금기를 넘어 선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울화와 슬픔 속에서도 수절의 덕을 지켜온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밀애를 눈치 채고 비난을 퍼붓지만 강현희는 “당신의 정절보다 나의 배덕이 훨씬 위대하다”(171쪽)고 마음 속으로 항의한다.

### 3. 사랑의 환영과 자존의 추구

그러나 이 소설의 심층에는 사랑이 구원이나 환희일 수 있는 지 회의하는 목소리 역시 깔려 있다. 표류도로의 여행 이후 이상현이 윤리를 어겼다는 마음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안정을 회복하는 데 반해 강현희는 “육체의 교류라는 것이 여자에게는 굴종을 의미”하는 데 대한 반감인 양 이상현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힌다. 이상현을 향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 젠더, 계급 그리고 혼인 유무를 둘러싼 차이로 인한 갈등은 불거지며 그녀는 중국에 닥칠 자신들의 불행한 미래를 냉정하게 응시한다. “우린 서로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아요.”(182쪽)라는 강현희의 말은 사랑이 현실적 장애를 초월할 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냉정한 판단을 담고 있다. 정념의 쾌락은 그녀의 자존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기에 사랑은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훗날 강현희가 우발적 살인을 저질러 수감됨으로써 두 사람의 애정 갈등은 저절로 해소되지만 기실 이별은 강현희의 의지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정명환은 이 작품에 대한 해설에서 어쩌면 사랑에 소극적으로도 보이는 강현희를 “제도의 타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321쪽) 기만적 자아라 칭하며 이 작품이 “폐쇄된 사회 그 자체의 본질과 양상과 그 속에서의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에는 미치지 못”(319쪽)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전후 낙인찍힌 섹슈얼리티로서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성긴 비판으로,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존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의 결단에 담긴 저항의 의미를 외면한 것이다.<sup>17)</sup>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형법이 시행된 1953년부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인 1960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 미망인의 증가, 생계 불안, 전통 질서의 동요, 미국 문화의 확산, 범죄와 부패의 범람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주로 성적 문란함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것 혹은 비국민을 발명해 내는 ‘풍기문란의 정치’가 이루어졌다.<sup>18)</sup> 국가는 간통죄를 쌍벌죄로 규정하는(1953) 것을 시작으로 중혼을 금

17) 정명환, 「무인 자아의 자기기만」, 『표류도』, 나남출판사, 1999, 321-328쪽

18) 본래 풍기문란은 일본의 식민 통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미군정 지배를 거

지하고(1958) 축첩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혼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을 처벌해 일부일처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혼인빙자간음죄’ 등을 제정해 개인의 사생활에 형법적으로 개입했다. 사실상 국가 권력이 겨냥하는 대상은 강현희와 같이 “정상 가족” 바깥의 여성들이었다. 전쟁미망인 등 여성 가장들은 성매매 여성이나 첩처럼 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여성으로 여겨지면서 대중적 재현 서사에서 과잉 섹슈얼리티의 유혹적인 팜프파탈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성적 혼란에서 찾고 섹슈얼리티의 위계화를 통해 정상/비정상, 국민/비국민을 가르는 섹슈얼리티의 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후 사회에서 불륜은 더 이상 자기 진정성의 윤리를 심문하는 물음이 되지 못했다. 불륜은 타인의 요구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인생을 살 것인가,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나의 간절한 소망에 따르는 것 중 어떤 것이 진실한 삶인가라는 딜레마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근대 문학의 주제가 될 수 있었다. 불륜을 이상화한다기보다 ‘신실성’과 ‘자기진정성’<sup>19)</sup> 중 무엇이 참된 도덕인가를 질문함으로써 내향적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 개인주의와 함께 부상한 ‘낭만적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대에 들어 정념의 거처가 가문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동하면서 무엇이 참된 삶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 그러나 법이 사생활에 개입해 열정이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자의식이 약화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진다. 강현희의 여고 동창생인 계영은 상류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기만적

---

치고 한국 전쟁을 경유하면서 강화된다. 권명아는 “일제의 식민 통치 시기에 만들어진 풍속 통제의 원리와 법제, 모형들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풍속”이라는 말이 걸어온 역사적 행보를 규명하는 일에는 식민성, 근대성, 또는 피시즘과 민주주의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강조한다. 권명아,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23-24쪽.

- 19) ‘자기 진정성’은 사람들은 각기 고유한 척도를 가지고 있고 인간적일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여되는 공동체의 의무는 중요성이 퇴색하고 ‘나’를 위한 무엇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나온 근대인의 윤리를 뜻한다. 나의 척도에 진실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의 요점을 잃게 되며, 공동체와 관련없이 본연의 내면과 접촉할 때에만 나는 진정하다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 자기 진정성의 도덕적 이상이다.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 사회』, 송영배, 이학사, 2002, 111쪽.

우월감을 비판적으로 가시화하는 인물이다. 계영의 아버지는 금괴밀수 사건으로 체포되지만 해방이 되자 우국 지사로 이력을 위조해 민의원이 되고, 만주군이었던 사위를 군의 준장으로 만들만큼 공동체의 수난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속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영은 강현회가 사생아를 낳았고 다방 마담이고 유부남과 사귀는 이유로 그녀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는다. 또한 남편의 바람끼로 속앓이를 하면서도 법적으로 견고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로 턱없이 높은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다. 도덕은 선한 의지, 즉 도덕적 법칙에 대한 존경과 선에 대한 내면적 동경에서 비롯되는 자유로운 결단이 아니라 외적 권위에 대한 복종을 뜻하게 된 것이다.<sup>20)</sup>

이렇듯 박경리는 현실의 맥락에서 자유로운 낭만적 환상에 사로잡히기보다 도덕에 대한 내적 판단 기준조차 상실한 사회에서 사랑이 과연 여성을 구원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숙고한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성적 행동에 대한 잣대가 판이하게 다른 성적 이중 규범이 완강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국가법이 향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사랑은 사회로부터의 축출이라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고민하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박정미의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는 전후 사회에서 ‘풍기문란’이라는 발상에 근거한 재건의 정치가 무엇을 의도하였는지에 관한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박정미는 국가가 자존심을 구기고 식민지 형법을 차용하면서까지 만든 개정 헌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sup>21)</sup> ‘형법요강해설’은 “전통적 미풍에 비추어 부녀의 정

20) 도덕은 선한 의지, 즉 도덕적 법칙에 대한 존경과 선에 대한 내면적 동경에서 비롯되는 자유로운 결단이다. 그러나 도덕이 외적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이해되면 도덕은 보상에 대한 기대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든 생존을 위해 가장 영리한 선택이라는 처세 판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김상봉, 『호모 에티쿠스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한길사, 1999, 111쪽.

21) 한국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53년 7월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독립국가에 걸맞는 법제를 마련하려는 의도인 듯 법조계는 국가의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식민지 형법을 차용하면서까지 새로운 법률의 초안을 마련한다. 1926-49년까지 식민 지배자인 일본이 형법의 다양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형법가안’에서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 304조)를 가져와 한국 형법에 도입한 것이다.

조는 재산권은 물론이고 때로는 생명권보다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부녀의 정조를 농락하는 소행에 대하여는 그(것이) 강간이 아닌 이상 아무런 처벌규칙도 없는 것이 우리 현행 형법 법규”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서술은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 약탈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 법은 정조를 여성의 생명으로 적시했다는 데서 후진성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보호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여성을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와 순결한 여자로 이분화하고 국가 법이 여성의 음란함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선언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박경리는 이처럼 국가의 사법적 권력이 여성 시민의 신체의 자유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한 사회에서 사랑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기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다. 여성 작가들은 주로 자매나 친구 등 상반된 성격의 여성 짝패 플롯을 통해 성녀와 창녀 외에 제 3의 선택지가 없는 여성의 곤궁한 현실을 비판해 왔는데, 마돈나의 레지인 광희는 이지적인 강현희의 다른 자아, 즉 순수한 관능을 상징하는 짝패 자아이다. 전쟁 고아인 그녀는 자신처럼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은 시인 민기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붓는 정열적인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순진하고도 서정적 태도로 인해 민기에게 임신한 채 버려지고 아이를 낙태하는 모멸적 경험에 노출된다. 박경리는 낙태 수술을 받으며 “짐승과 같은 괴상한 소리로” 울부짖는 광희의 모습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랑의 환상이 여성에게 얼마나 모멸적인 대가를 요구하는가 폭로한다. 광희는 ‘마돈나’, 즉 사랑의 쾌락을 알지 못하면서 수태와 낙인의 고통만을 안은 전후 여성, 즉 실격당

---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사회와역사』 94, 한국사회사학회, 2012, 262-265쪽.

22) 엄상섭, 「형법요강해설」, 『법정』 9-10월호, 신동훈·허일태 편,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박정미의 논문에서 재인용. 박정미, 위의 논문, 276쪽.

23) 일본의 형법 가안이 보호 객체인 부녀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데 반해 한국의 제정 헌법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보호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미의 논문을 참조할 것.

한 주체로서 여성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이후 광희는 세상과 남자에게 복수하듯 종로 3가의 창녀가 되어 자신을 상품화하지만 성매매 단속에 걸려 수감되고 성병에 시달리다 자살한다.

전후 사회의 여성 현실에 대한 작가의 절망적 인식은 강현희가 광희의 낙태수술을 목도한 후 충격을 받아 히스테리적 착란 속에서 다방 손님인 최강사를 살해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강현희는 “여자는 돈과 폭력이면 정복되는 동물”(251쪽)이고, “이런 곳(다방-필자)에 있는 여자는 레이디가 아니니”(252쪽)라며 최강사가 자신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청동 꽃병을 던져 최강사를 살해한다. 이후 강현희가 살인 죄로 구속됨으로써 소설의 무대는 감옥과 법정으로 변모하는데 박경리는 감옥을 가부장적인 국가 법의 기만을 폭로하는 공간으로 초점화한다. 강현희와 함께 수감된 여자들 - 불륜을 통해 생긴 자기 아이를 살해한 어린 여자, 실연의 결과 양공주가 된 늙은 여자, 정사 중 남자가 피를 흘리자 도망친 여자, 함부로 자신을 취한 남편을 죽이려다 미수죄로 잡혀온 첩, 손님과 화대를 시비하다가 붙잡혀 온 광희 등 - 은 기실 불우한 사연을 가진 사건의 희생자로서 죄지은 여성에 대한 선/악 판단의 이분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법정은 공정한 판관임을 내세워 악을 처벌한다고 자부하지만 기실 풍기문란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죄의 울가미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sup>24)</sup>

강현희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정 장면은 형법이 의도하는 것은 죄와 벌의 무게를 측정해 사회를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유지하는 것이라기보다 부권의 회복을 기도하는 데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현희는 “약한 위치에 서 있는 피고가가 아무 잘못 없이 짓밟힌 가엾은 정사”에 대한 재판장의 관대한 처분의 결과 2년 형을 받는다. 법정은 “여성에게는 정조가

24) 근대 국가는 민법을 통해 법률적으로 정치 사회와 구별되는 가정 사회 개념을 확립시켰는데, 전자가 계약을 통해 성립한다면 후자는 자연적 질서를 통해 움직여지는 사회로 여겨졌다. 가정 사회, 즉 가족은 시민 사회와 별도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곳으로 부계 혈연과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를 특질로 한다. 이로 인해 근대 사회는 남녀의 가족적 신분을 차등적으로 규정짓는 성(性) 신분의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존립하게 된다. 가족에 존재하는 성 신분적 봉건 구조는 시민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시민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영자, 「시민 사회와 성의 정치학」, 『현상과인식』 24(1·2), 2000, 43-45쪽.

생명과 다를 바 없이 귀중한 것”인데, “창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삼자에게 구두 매매함으로써 개인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비열에 대한 피고의 폭력 행위”는 자신의 정조=생명을 지키려는 것이기에 정당 방위라는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해 그녀에게 관용을 보인다. 사실상 법정은 정의를 구현했다기보다 여성이라는 신체적 차이를 온전히 시민적 성원권을 가질 수 없는 결여 혹은 결핍으로 위치지어 자율적 개인의 주체 위치를 박탈하는 젠더 정치가 펼쳐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강현희는 히스테리결한 여성 반항아이지만 반복적으로 약자 혹은 피해자로 묘사되며, 사생아를 낳은 전력 이 있는 다방 마담이라는 이력은 “비록 불미스러운 이성관계가 있었지만 진실한 생활자”(284쪽)로 온정주의적으로 재해석됨으로써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전통적 여성성으로부터 이탈한 여성에 대한 길들이기가 시도되는 것이다. 강현희가 최강사에게 표출한 폭력은 자기 존엄에 대한 여성적 자의식의 표현이지만 법정은 그것을 여성에게 정조는 생명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로 해석함으로써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유권, 즉 성적 자기 결정권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이다.

이렇듯 기만적인 현실에 대한 박경리의 대응은 다소 수세적인 것으로 읽히기 쉽다. 특히 출옥하는 강현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딸 ‘훈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작가가 ‘바람 난 어미’에 대한 처벌을 의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딸을 잃은 강현희는 수예점 속에 자신을 감금시킨 채 마치 죄수가 노역을 하듯 쉬지 않고 뜨개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립과 칩거는 강현희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근거를 둔 자기 처벌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 텍스트의 클리세로서 규범을 이탈한 여성에 대한 심판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이상현과 이별하고 김선생에게 결혼을 제의함으로써 죽음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정념은 이상주의자인 이상현을 향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는 김선생(김환규)을 향한다는 점에서 두 남자는 각각 강현희에게 이상과 현실을 상징한다. “나는 강인한 채찍으로 내 마음을 후려쳤다. 나를 현실에 적응시켜야 한다. 내 생명이 있기 위하여 나를 변형시켜야 한다.”(314쪽)는 서술은 결혼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위태로운 자기를 지켜 삶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간간힘임을 의미한다. 이상주의로는 삶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상현을 버리고 현실주의자인 김선생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선생’

과의 결혼이 애정을 결여한 기계 장치같은 것이 되리라고 예단할 수 없다.

김선생은 인간은 각자 자신의 고독을 짊어진 섬, 즉 개체이지만 “섬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할 만큼 개체의 자유나 능동성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에게 사랑은 인연이나 신비가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표류할 수 있는 섬들이 삶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에너지이다. 그는 “애정보다 마음이 맞다는 것, 생각이 같다는 것, 헤치고 나갈 세계가 같다는 것, 그런 점이 둘을 결합시켜 줄 것입니다. 상현이는 감정의 대상이요, 찬수는 지성의 대상이요, 환규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는 마지막의 인간의 가능성입니다.”(314쪽)라는 말로 강현회의 프로포즈에 응답한다. 그는 오랜 시간 강현회를 후원해 올만큼 그녀를 은밀히 짝사랑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기실 뜨거운 정념이나 로맨틱한 신비를 결여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 보고 ‘인간적’ 호감을 품어 온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로도 해석 가능하다. 강현회가 이상현과 유사하게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이면서도 그와의 이별을 선택한 것은 ‘낭만적 사랑’이 현실과 융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은 사랑 대상의 이상화를 특징으로 한 것으로,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결여를 메꾸어줄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의거해 있다. 이상현은 교양 부르주아지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지만 명문가의 자손으로 가문에 의해 짝지어진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 다. 반면에 강현회는 자기 안에 잠재된 반항적 자아, 즉 위반의 욕망을 일깨우기 때문에 매혹적인 대상이다. 그에게 강현회와의 사랑은 가문이라는 공동체주의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자 말 잘 듣는 모범생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환상이었던 것이다.<sup>25)</sup>

박경리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부활』 같은 고전들이 사랑의 비극을 미화하며 기실 여성의 수난을 방조해 왔다고 비판하며 사랑은 어디까지나 삶과 양립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인의 열정을 관리하려는 가부장적 국가의 기획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명과 자존을 지켜줄

25) 권혜린은 이상현이 낭만이 부재한 결혼 생활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강현회와의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며 강현회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혼자만의 상상적 동일시를 추구한다고 분석한다. 권혜린, 「박경리의 『표류도』에 나타난 사랑의 정동」, 『이화어문논집』, 45호, 이화어문학회, 2018, 94쪽.

수 있는 사랑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함께 『부활』을 보고 난 후 강현희는 영화에 감동하기보다 유배지를 향하는 카츨사의 비극적인 모습을 쉬이 지우지 못한다. 표류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상현은 윤리를 어긴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설득하려는 듯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여자를 가로챈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죄의식과 세상 밖에 밀려나온 고독 속에서도 어쩔수 없었던 그들의 애정”(171쪽)을 옹호하지만 강현희는 이상현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며 다시금 유배지를 향하는 카츨사를 떠올린다. 강현희에게 사랑은 억압적인 사회를 초월할 수 있는 해방의 지평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또한 강현희가 이상현과의 이별을 결심한 것은 그가 자신을 ‘상간녀’가 아니라 어엿한 부인으로 앗혀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 그와의 결혼에서 자존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때문이기도 하다. 강현희는 어디까지나 세상바깥으로 내밀리지 않는 한편으로 남자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과 자존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해방세대로서 강현희는 전후의 여성 혐오사회에서 자기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비전을 통해 살아남은 여성이 되고자 한 것이다.

#### 4. 결론

이 글은 박경리의 『표류도(漂流島)』(1959)를 로맨스가 미디어의 문화 상품이자 성차별적인 여성 교양의 일종이었던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 표현과 발견의 서사로 재전유한 사례로 주목하고자 했다. 박경리는 1950년대라는 한국 근대의 기원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식민지기의 ‘신여성’, 해방기의 ‘노라’, 전후의 ‘아프레 곁’로 이어지는 여성 주체의 역사가 로맨스 담론을 통해 급격히 재조정되는 국면을 포착하는 한편으로 여자의 성숙에 대한 매우 복잡하면서도 성찰적인 이야기를 완성했다. 박경리는 가부장적인 문단 환경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면서도 여성 독자를 견인하며 페미니스트 글쓰기의 지평을 넓혔다. 많은 작가들이 남북당하거나 월북해 작가 기근에 시달린 전후 문단에서 여성 작가들은 다양한

공모 제도를 통해 데뷔해 식민지기 여성 문인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다수를 차지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러나 여성 작가들은 “구수 작가”로 호명됨으로써 비문학 매체에서 주로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사랑에 대한 소설을 창작하는 한편으로 글쓰기의 여성적 규범을 요구받는 등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가부장제의 귀환 국면 속에서 사적 영역에 고립되며 사랑의 사제로 호명되기 시작한 여성 독자들에게 『표류도(漂流島)』도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텍스트였을 것이다. 박경리는 젠더화된 로맨스를 여성 교양 형성의 계기가 아니라 여성의 각성과 성숙의 무대로 재의미화함으로써 여성 글쓰기의 대안을 제시하고 성찰적 주체로서 여성 독자를 재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권명아,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 권혜린, 「박경리의 『표류도』에 나타난 사랑의 정동」, 『이화어문논집』, 45호, 이화어문학회, 2018.
- 길박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 김상봉, 『호모 에티쿠스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한길사, 1999.
-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 : 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戰後 사랑의 인식구조-1950년대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 류경동,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연애와 새로운 소비 주체」,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사회와역사』 94, 한국사회사학회, 2012.
- 송승철, 「대중문화의 불온성 논쟁: 재니스 레드웨이의 문화연구적 고찰」, 『영미문학연구』 1, 영미문학연구회, 2001.
- 이영자, 「시민 사회와 성의 정치학」, 『현상과인식』 24(1·2), 2000.
- 조서연, 「낙인찍힌 섹슈얼리티들, 그 급진적 성정치의 이론과 현장」,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2015.
-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사랑의 등장』, 조형준 역, 새물결, 2015.
- 벨 훅스, 『사랑은 사치일까?』, 양지하 역, 현실문화, 2015.
- 술라미스 화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김예숙 역, 풀빛, 1983.
-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1996.
-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승희 역, 녹두, 1994.
- 재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 조앤 윌라치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 프랑스 여성참정권 투쟁이 던진

- 세 가지 쟁점 여성.개인.시민』, 공임순, 최영석, 이화진 역, 앨피, 2006.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 사회』, 송영배, 이학사, 2002.  
플라톤, 『향연 : 사랑에 관하여』, 박희영 역, 문학과지성사, 2003.

❖ ABSTRACT

Gendered National Reconstruction and Lost Passion:  
Reading Park Kyung-ri's 「Signature」(1959) again

Kim Eun-ha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Park Kyung-ri's 「Pyoryudo」(1959) is a problematic text that asks a woman if love can be elevating and a salvation. Park Kyung-ri captures the gentler political nature of social reconstruction through the love of female intellectuals of the liberation generation. The love of a war-weary woman who gave birth to an illegitimate child and its narrative of frustration will have to be identified in the stream of Zander's history, in which the time of female self-reliance, leading to the colonial "new woman", the liberation period's "no", and the post-war "après girl", are readjusted. From 1953, when the Korean War ended and the Korean criminal law took effect, until 1960, before the military coup took place, various social problems arose, including the rise of a war-ravaged population, the instability of livelihood, agitation of the traditional order, the spread of American culture, and a flood of crime and corruption. The nation's response to such a precarious and unstable society was the politics of an abnormal thing or an unwritten one that invented a non-people based on the vague criteria of sexual promiscuity. The targets of state power were mostly women outside of their normal families.

Key Words : Park Kyung-ri, love, hierarchy of sexuality,  
gendered reconstruction, politics of the windmill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